2006년 2월
석사학위논문

오순절 성령 운동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이 근 석

오순절 성령 운동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

지도교수 조 봉 근

이 논문을 목회학 석사 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28 일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이 근 석

오순절 성령 운동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

이근석의 신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2월 일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이 근 석

국문 초록

오순절 성령 운동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

이 근 석

지도: 교수. 조 봉 근 신학박사

전공: 조직신학

광신대학교

오순절운동은 개인과 교회에 있어서 영적 삶의 능력이 은사적 현상을 동반하는 성령세례에 있으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은사를 오래전에 이미 소홀히 해왔으나 이제야 비로소 다시 발견되고 자기들에 의하여 체험되었다고 오순절 성령강림은 오늘날에도 지속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필자는 오늘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단 한번 일어난 정경적 사건으로 오늘날 재현 될 수 없는 사건임을 성경을 통하여 풀어 나가고자 한다.

학위논문(저작물) 이용동의서

학 과	이 근 석	학 번	03417039	과 정	(M. Div)
성 명	한글: 이 근 석	한문 : 李 根 爽		영문 : Lee Keun Seok	
주 소	전북 부안군 주산면 본제리 46번지				
연락처	E-Mail :				
논문제목	한글 : 오순절 성령운동에 관한 개혁주의 입장 영문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광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합니다.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합니다.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6. 광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합니다.

2006년 2월 일

저작자 : 이 근 석 (인)

광신대학교 총장 귀하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1
2. 연구 방법 ……2

Ⅱ. 오순절 운동에 나타난 성령……3

1. 오순절 운동에 대한 개관……3
   1) 일반적 개요……3
   2) 오순절 운동의 현황과 의미……4
2. 오순절 운동의 역사적 배경……5
   1) 몬타누스주의 ……5
   2)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5
   3) 미국의 대부흥 운동 ……6
   4) 미국의 성결운동……7
   5) 토레이(R.A. Torrey)……7
3. 오순절 운동의 시작과 신 오순절 운동의 출현 ……8
   1) 오순절 운동의 시작 ……8
      (1) 1901년의 Topeka 성령운동 ……9
      (2) 1906년의 Los Angeles 성령운동……9
   2) 신 오순절 운동의 출현……10

Ⅲ. 오순절 운동에 나타난 성령세례……11

1. 성령세례 중심의 오순절 운동……11

2. 첫 증거로서 방언의 중요성……12
3. 성령 세례에 대한 오순절 주의자들의 견해 ……15
1) 두 번째 체험으로서의 성령세례 ……15
(1) R. A. Torrey의 견해 ……16
(2) 조용기 목사의 견해……16
2) 봉사를 위한 능력으로서의 성령세례 ……17
(1)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세례 ……17

Ⅳ. 성령세례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 ……18
1. 성령세례(baptism with the Holy Spirit) ……18
1) 성령세례란 무엇인가? ……18
2) 성령충만이란 무엇인가? ……23
(1) 성령충만= 성령의 지배 ……24
(2) 엡5:18 성령충만을 받음= 성령통치 받음 ……25
(3) 사도들의 성령충만 ……26
(4) 성령의 인도= 성령충만= 죄악을 벗음……29
2) 개혁주의자의 견해……30
(1) 조봉근 박사 ……30

Ⅴ. 결론 ……38
참고문헌 ……40

Ⅰ. 서　론

1. 연구 목적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현대에 있어서 신학적 논쟁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성령론에 관한 것이다.
그 원인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오순절운동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성령의 활동과 은사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모든 교회에 최상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대한 수 많은 혼란도 동시에 야기 되었다.[1)]

성령과 영적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운동(Pentecostalism)은 새로운 교파들의 형성을 일으켰으며, 모든 교회와 교회에 깊이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2)]
사실 정통적 장로교회와 오순절운동의 성령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장로교회는 성령의 활동을 주로 성령의 중생사역과 성화사역에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에 오순절운동은 성령 세례론을 강조 하면서 방언, 예언 신유 등의 성령의 활동 사역에 집중시키고 있다는데 있다.[3)]

---

1) F. D. Bruner, 「성령신학」 김명용 역, (서울: 도서출판 나눔사, 1989), 역자 서.

2) Robert G. Gromacki, 「현대방언운동」, 김효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11~14.

3) 김 명용, "오순절운동의 성령론의 특징과 문제점", 「교회와 신학 제 22집」,(1990. 5월호) 181.

오순절운동의 가장 큰 공헌은 교회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깊이 관심을 가지게 했고,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소멸해간 기독교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측면을 성령론의 강조를 통해 회복시키고 확대 시켰다는데 있다.[4)]

그러나 일면 성령론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가져온 부작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들은 근본적으로 성령세례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곡해를 하는데서 신학적 탈선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성경적인 성령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 경험세계를 절대화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믿고 있는 입장을 남에게 전수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신비주의적 경향성을 넘어서 인본주의적인 아집에 빠진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5)] 본고는 성령 세례론에 관한 오순절운동적인 측면에 대한 개혁주의적입장의 비교 및 재조명을 통해 성령 운동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고는 성령론에 관한 분야 중에서 오순절운동과 성령세례 부분에 집중 할 것이다. 성령세례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혁 주의적 성령세례와 오순절 주의적 견해로 상반된다. 본고는 먼저 오순절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주장하는 바를 개진하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중생과 성령세례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방대한 성령세례에 관한 글들을 통하여 오순절주의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정리 하고 개혁주의 입장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

4) Ibid.

5) 조 봉근, 「성령론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복음문화사, 1991), 136.

Ⅱ. 오순절운동에 나타는 성령

1. 오순절 운동에 대한 개관

1) 일반적 개요

오순절 운동은 오늘날 세계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증가도상에 있다.[6] 교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또는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등을 구성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번져 나가고 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다른 교단의 신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다. "초자연적이고 특별하고 가시적 (可視的)인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신자의 회심 후 체험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다."[7] 그러면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오순절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며 주장하는 성령세례(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다.[8]

따라서 오순절운동은 무엇보다도 성령세례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doctrine)가 아니라 체험 (experience)이다. 그래서 Bruner는 오순절주의를 체험적 기독교(Experiential Christianity)라고 부르기도 한다.[9]

지에 의하면 오순절운동의 핵심은 '순전히 능력 있고,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한다.[10]

---

6) F. D. Bruner, 「 성령신학」, 김명용 역, (서울: 도서출판 나눔사, 1989), P13.

7) Ibid, P20.

8) 성령세례 또는 성령의 세례라는 말의 영어 표현에는 baptism in Holy와 baptism of the Holy Spirit가 주로 사용되고 가끔 Holy Spiritbaptism이란 표현도 사용된다. 여기서 앞의 두 표현에 있어서 전치사 IN과 OF를 서로 구별하여 문제 삼는 사람도 있으나 헬라 원어에 있어서 모두'εν'로 표현되고 있다.

9) Ibid, P.21.

10) Ibid.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신약 성격에 나타난 기적과는 구별해야 한다. 오순절 신학은 이 점에서 약점이 있다.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을 같이 본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이란 말을 무시한다.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되었는데 지금도 계시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는 기적은 신약에 나타난 계시의 사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은혜로 누리에게 덤으로 주신 것이다.[11]

2. 오순절운동의 현황과 의미

금세기 전에는 오순절운동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1960년대에 이미 오순절운동의 단체에 소속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멕시코, 포루투칼,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등지에서는 로마 카톨릭 다음으로 큰 교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혈질의라틴아메리카에서 뿐만아니라 냉정한 스칸디나비아에서도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12]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단순히 신자의 숫자만 살펴본다면 미국에서는 약 300만 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브라질에는 약 200만 명, 인도네시아에는 약 100만 명, 칠레에는 거의 100만 명, 남아공화국에는 약 50만 명의 오순절 주의자가 있다.[13] Van Du sen은 오순절운동을 평가하기를 "기독교에 있어서 제3의 세력"이라고 했다. 즉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 이어서 제3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순절주의자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안식교, 나사렛교회 등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오순절주의 그룹이라고 한다. 또한 Van Du sen은 오순절 운동을 새로운 종교 개혁(The New Reformation)이라고 했다.[14] 그리고 L. Newbigin은 Glasgow에 있는 Trinity College에서 교회

11) 이 종윤, 「요한복음 강해2」,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PP.64-65.

12) F. D. Bruner. op. cit. P.24

13) Ibid, P.25.

14) Ibid, P.30.

론에 대해 강의 할 때, 오순절 운동을'제3의 교회론'이라고 했다.[15] 즉,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것은 개신교에 해당하고, 성례전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영속하는 교회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 해당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오순절운동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3. 오순절 운도의 역사적 배경

1)몬타누스주의(Montanism)

몬타누스중의가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현대 오순절주의 그것과 거의 모든 점에서 놀랄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R. Seeberg는 몬타누스주의의 기본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계시의 마지막 시대가 열렸다. 신령한 은사를 인식하는 것은 몬타누스주의의 뚜렷한 특징이다. ②몬타누스주의자들의 중요교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들은 신앙의 규칙을 받아 들였다. ③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 강하게 강조 되었다. ④엄격한 도덕적 요구들이 있었다.[16] 몬타누스주의의 성격은 오순절주의의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특징이 유사하다. 또한 이방인에게 있어서 몬타누스주의의 가장 특징적 모습은 오순절주의에서와 같이 황홀경이었다.[16] 그러므로 몬타누스주의는 오순절주의의 여러 양상의 원형으로서 관심을 끈다고 할 수 있다.

2) 요한웨슬레의 감리교운동

오순절운동의 근대적 기원을 요한웨슬레 로부터 잡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 거

---

15) Ibid, P.31.

16) F. D. Bruner, op. cit. P.36.

의 일치하고 있다. 웨슬레의 감리교운동을 오순절운동의 먼 조상으로 삼는 이유는 그가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완건"이란 것이 오순절운동의 "성령세례"라는 것과는 "두 번째 체험"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17]

그래서 Bruner는 18세기 감리교는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의 어머니이고 이 성결운동은 다시 20세기의 오순절주의를 낳았다고 한다.[18] 고대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순절주의가 순간적으로 체험된 성령세례에 대한 갈망에 집중되는 것은 성화의 순간적 체험이 칭의 이후의 은총의 제2 축복(second work of Grace) 감리교도들의 성결을 탐구하는 동 운동에 비롯된 것이다.[19]

그러므로 칭의 후의 즉각적인 성화의 체험의 교리는 오순절주의의 회심 후의 성령세례라는 교리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3) 미국의 대 부흥 운동

신학적으로는 감리교가 오순절운동의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 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Revivalism)이 큰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20]
19세기 부흥운동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두 사람은 C. Finney와 D. L. Moody이다. 이중에서도 Finney는 그의 독특한 회심과 그의 부흥방법론, 그리고 그가 후에 끼친 영향으로 인하여 오순절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기술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Finney는 "초기 웨슬레주의와 현대 오순절주의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다리이다."[21]
Finney의 신학은 칭의 보다 성화를 중시하고있다. 그가 특히 성령세례의 중요성을

17) Ibid.

18) Ibid, P.37.

19) Ibid, P.38.

20) Ibid, P.39.

21) Ibid, P.40.

강조한 것은 오순절 성령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22] 따라서 성령세례는 Finney로부터 시작 하였는데, 그는 인간의 영혼을 회개 시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온다고 말했다. 그런데 Finney는 성령은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주의를 채택하였다.

4) 미국의 성결운동

C. Finney를 중심으로 하는 10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은 20세기의 오순절운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량으로서, 미국의 성령운동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도덕적 타락, 교회의 세속화에 따른 감리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의 불만 그리고 웨슬레의 완전 교리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감리교 내부의 욕구,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방응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세기 후반의 성결운동이 19세기 전반기의 부흥운동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결운동에 있어서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이 성화의 체험(The Experience of Sanctification) 또는 두 번째 축복(The second Blessing)에 대한 명칭으로서 대중화 되었다.[23]

이 운동을 Finney를 시작으로 Asa Mahan, W. Palmers, T. C. Upham, A. B. Earle, W. E. Boardman등을 중심으로 미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영국으로 건너간 후 R. P. Smith를 통해서 독일까지 번지게 되었다.[24] 그러므로 세계적인 성결운동으로부터 오순절운동이 탄생한 것이다.

5) R. A. Torrey

---

22) 차영배, "오순절 성령운동과 개혁 신학의 원리", 「신학지남」, (1981,제 48집), P.8.

23) F. D. Bruner, op. cit. P.42.

24) 차영배, op. cit. P.9.

오순절주의자들은 R. A. Torrey의 가르침대로 성령세례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 한다. 성령세례는 중생 사역과 구분되고 부가되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능력을 전달 받아 봉사에 적합하게 한 것이라고 정의해서(R. A. Torrey. The Person & Work of the Holy Spirit 149~150) 오순절운동의 표준이 되게 한 성령세례 받는 조건들을 제시한다. 믿음 이상의 조건들로 성령세례를 성령의 선물로 또 성령 내림으로 동실시 하면서도 성령의 선물을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멘지스의 주장대로 모든 신자들은 아버지의 약속 곧 성령세례에 대해 자격이 있지만 열렬히 기대하고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William W. Merzies. Anointed to Serve) 성령세례는 그냥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증거와 봉사의 유효성이기 때문에(R. A. Torrey. 155~156)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 Torrey는 성령세례 받는데 필요한 7단계를 제시한다.

①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받는 것이다. ②죄를 폐기하는 것이다. ③우리의 죄를 폐기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④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양도이다. ⑤성령세례에 대한 열렬한 욕망이다. ⑥성령세례를 위한 열정적인 기도이다. ⑦마지막 단계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처음 예수 믿음이 아니라 성령세례를 기어이 받고 말겠다는 믿음이다.

위의 조건들을 다 이행하고서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믿으면 받는다는 것이다. Torrey의 경우는 조건 충족 후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믿으면 그 세례를 받는 조용한 현상이지만, 오순절파는 황홀한 경험과 방언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Torrey는 1926년 오순절운동을 거부하고 정죄한다.[25]

4. 오순절운동의 시작과 신 오순절운동의 출현

1)오순절운동의 시작

25) 서 철원, 「성령 신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5), PP.42-44.

오순절운동(Pentecostalism)은 오순절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세례를 받고 그 표로 방언해야 한다는 신학으로 시작 하였다.
이 운동자들은 방언 받는 것을 추구하였다. 방언이 나타날 때 성령세례가 이루어졌음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언이 오순절파의 기본 특징이고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과 구분시켜주는 흉장이다. 그들은 성령세례를 추구 했다기 보다는 방언 말함을 열렬히 추구하였다. 방언이 없으면 오순절파로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방언을 하면성령세례를 받았음이 당연하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오순절운동은 그러므로 방언 추구로 시작 하였다.[26]

(1) 1901년의 Topeka 성령운동

이러한 방언의 체험은 20세기에 들어오자 발생 하였다.1901년 1월 1일 칸사스의 토페카에 있는 벧엘 신학교에서 Charles Parham의 안수를 받은 Agnes N. Ozman이라는 여학생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20세기 방언이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다.[27]

(2) 1906년의 Los Angeles 성령 운동

오순절운동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은 1906년 LosAngeles Azusa Street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때의 중심인물은 W. Seymour였는데 그는 오순절주의의 교리를 전파하는 성결주의 설교자였다. Seymour가 오순절 교리를 전하는데 그가 Azusa Street 312번지에 위치한 구 감리교회 건물에서 집회를 가질 때 오순절 현상 즉 성령세례와 방언과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났다.

26) Ibid, P.21.
27) Ibid, P.22.

이 운동의 짧은 기간에 미국 전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프랑크 바틀란의 문서 활동에 크게 의존하였다.[28] 그리고 노르웨이 감리교 목사 T. B. Barratt를 통하여 노르웨이에서 오순절운동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결국 영국, 독일, 스웨덴에 번졌다.[29] 그리하여 오순절운동은 한 세대 안에 교회 역사상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2) 신 오순절 운동의 출현

1950년대에 들어서자 오순절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세례와 방언이라는 오순절 현상이 오순절주의 교단을 뛰어 넘어서 비 오순절 교회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30] 이처럼 오순절 교리 바깥에서 오순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 오순절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다.[31]

그런데 신 오순절운동은 점차적으로 은사운동(Charismatic Movement)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은사운동은 성령세례와 함께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강조되므로 그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신학은 중생 후 성령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표로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데는 오순절운동과 동일하나,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은사에 강조를 주는 면만 다르다.[32]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세례)로,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세례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물세례라고 한다면, 이 물세례를 효과있게 하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를 불세례(성령세례)라고 할 수 있

---

28) Ibid, P.23.

29) 차 영배, op. cit. P.10.

30)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물론 이거니와 그 후에는 카톨릭 교회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31) 차 영배, op. cit. P.11.

32) 서 철원, op. cit. PP.28,29.

기 때문이다. 후자는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세례를 받으며, 혹자는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구원으로 초대된 모든 성도들에게는 물세례를 받은 자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 즉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물세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33]

신 오순절주의의 발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종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없다.[34] 우리는 이점을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정통교회가 잠자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활에 생명과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장은 소리 나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

Ⅲ. 오순절운동에 나타난 성령세례

1. 성령세례 중심의 오순절주의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 즉 충만하다(행 2:4), 영접하다(행 2:38), 인침을 받다(엡 1:13)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다(고후 1:21)의 의미를 갖고 있다.

Skibstedt는 성령세례라는 것은 한 개인이 초자연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의식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빨려들어 가거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34]

오순절운동에 있어서 성령론은 성령에 대한 교리를 강조한다고 보다는 성령세

33) 조 봉근, 「성경적 조직신학」, (광주: 도서출판 복음문화사, 2002), PP. 230-231.

34) F. D. Bruner, op. cit. P.66.

례에 대한 교리를 강조한다. 즉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오순절 성령도래의 전율 속에서 그 신학의 중심을 찾는다.[35]

오순절주의자들에 의하면 오순절은 근본적으로 성령체험이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서의 체험이다. 중생이후에 성령세례를 받게 되고 그 증거로서 처음에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완전한 회개와 절대복종, 전적인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거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36] 이러한 성령체험은 본질적으로 성령세례와 그 결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체험으로 이해되어 진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만 (회개) 그리스도가 아직 모든 크리스챤에게 성령세례를(오순절)를 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이 내용에서 식별할 수 있듯이 오순절주의 자들의 견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37]

①일반적으로 그 사건은 중생과 분명히 다른 것이며 중생 이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②성령세례의 증거로 방언 징조가 우선 나타난다. ③성령세례는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첫 증거로서 방언의 중요성

오순절운도의 특징적인 교리가 성령세례론이라고 한다면 이 교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방언이 성령세례의 처음나타나는 증거라는것이다.[38] 그러므로 오순절주의자들은 방언이 나타난 독특한 오순절 사건은 모든 다른 성령세례를 위한 유일하고도 진정한 모형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성령세례와 방언의 증거를 연관시키는 신학적 행위가 오순절운동을 만들어 내는 촉매였다.[39]

---

35) Ibid, PP.56-57.

36) Ibid.

37) Ibid. P.62.

38) Ibid, P.80.

만일 방언 체험이 없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성서적이거나 체험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도의 영적인 체험인 동시에 육체적인 체험인 방언은 성령의 오심을 의식할 수도 있고 분명하게 시기를 정할 수도 있는 체험으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방언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세례를 이해하는 그 이해에 상당히 중요한 것, 즉 체험의 명백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사실상 여러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형상 가운데 예언, 신유 등도 포함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으로 간주되고 있고 또한 이 방언을 성령세례의 첫 증거로 삼은 것에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오순절주의 견해의 특징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 정열이다. 교회를 지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결코 다른 것에 의해서는 체험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방언만이 성서적 징표가 된다는 것이다.[40]

그러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의 언어 (구음)를 주셨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자 타락한 인간들이 대동단결하에 바벨탑을 쌓아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창 11:7,9)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와 방언현상과 제자들이 설교할 때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획기적으로 구속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단절과 영적 단절이 회복되는 증표로서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다. 사탄이 유혹하는 말과 악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 2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방언현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39) 김 명용, "오순절운동의 성령론의 특징과 문제점", 「교회와 신학 제 22집」,(1990.5) P.167.

40) F. D. Bruner, op. cit. P.90.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 사역과 영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방언 현상은 일반언어(General language or Cultural language)였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은 일반문화에서 쓰고 있는 '문법적인언어' (Grammatical language)였다.

이것은 '인간을 상대로 설교할 때 나타나는 방언'이기 때문에 '진성[眞性]방언'(Complete-speaking in tongue:100%의 가치와 신적인 계시사건을 인정함)인 것이다.[41]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영적 은사로서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수반되어야만 방언으로서의 가치와 신적인 계시적 권의를 인정하게 되는 '간접방언'이기 때문에 '유사[類似](Quasi-speaking in tongue:50% 가치와 신적인 계시 사건을 인정한)이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모든 영적은사들은 신적인 계시적 성격을 가진 은사들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깨닫게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계시성'[啓示性](Revelation)을 가진 방언(통역을 겸한 방언)과[42] 영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적교제(기도의 기능)를 가지는 방언(대신[對神]방언)[43] 즉 방언 기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격이 완성된(정경이 확정된) 지금은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개혁교회는 계시의 계속성을 믿지 않음), 계시의 기능으로서의 방언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신구약 성격 66권을 가지고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 하나로 통일되고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복잡하고 상호교통이 어려운 현상은 종말에 가서 끝이 날 것이다. 즉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의 방언(영음)'으로 통일 될 것이나 지금은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아직 아

41) 조 봉근, 「성경적 교의 신학」, (광주: 도서출판 복음문화사, 2004), PP.254-255.

42) 고전, 14:27-30.

43) 고전, 14:14-15.

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로서의 방언 기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전 14:2).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전 14:14에서 방언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는 은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고전 14:5,18,39), 또한 방언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한다.[44] 즉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고전 14:14)'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4장 15절에 이르기를 '효과적인 방언 기도의 방법'으로써 '영과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즉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망각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거나 영으로 찬미할 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음미하지 못한 채, 중언부언할 때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일반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나' 동일한 준칙이 있는데, 무아지경(Ecstasy)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 의식을 잃지 말고 마음으로(중심으로) 기도해야 한다.[45]는 것이다.

3. 성령세례에 대한 오순절주의자들의 견해

오순절 교리는 크게 보아서 은혜의 두 번째 체험으로서의 '성령세례 교리'와 그것을 따르는 '방언 교리'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리 중심은 오순절 성령강림이 기록되어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된다. 이 사실은 '오순절주의'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있다. 따라서 오순절 교리의 핵심은 사도행정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체험 즉 성령체험과 방언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령세례 '가 오순절주의의 심장이 된다.

1) 두 번째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

---

44) Ibid, PP.255-256.

45) Ibid, PP.256-257.

(1)R. A. Torrey의 견해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지만 오순절주의의 교리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Torrey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성령세례는 그것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분명한 체험이다. 성령세례는 중생사역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면 중생사역에 뒤이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다.[46]

뿐만 아니라 행 8:12와 19:1~2에서도 이와 같이 중생은 했으나 성령세례는 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Torrey는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세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전자는 생명과 구원에, 후자는 능력과 봉사에 관련시키고 있다. 성령세례가 두 번째 체험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성령을 소유한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47]

(2)조 용기 목사의 견해

조 용기 목사는 그의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오순절 교리를 해설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성령세례와 중생을 구별하고 있다.

성령은 죄인을 중생시켜 영생 즉 신의 성품을 얻게 하심으로 육의 인간을 하나님께로서 난 영의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세례는 동일한 체험이 아닌것이다.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이다.[48]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 전에 중생했다는

---

46) F. D. Bruner, op. cit. P.387

47) Ibid, "Every true believer has Holy Spirit...
But not every believer has the Baptism with Holy Spirit"

48) 조 용기, 「성령론」, (서울: 영산출판사, 1978), P.140.

증거로서는 요 5:24, 13:10, 눅 10:20, 행 1:4~5를 들고 있다. 그리고는 전통적인 성령론을 다음과 같이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2) 봉사를 위한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

오순절주의자들이 성령세례를 열렬히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봉사를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orrey의 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성령의 세례는 항상 증거와 봉사에 관련되어 있다"[49]
"성령의 세례를 죄의 청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봉사를 위한 능력부여를 목적으로 한다.[50] 이처럼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세례란 봉사를 위한 능력과 관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전파를 위한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51]

(1)복음전파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세례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행 1:8이[52]자주 인용되고 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성령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려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능력있는 복음전파를 위해서는 성령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호소하고 있다.[53]

---

49) R. A. Torrey, 「성령」, 기독교서회편집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50) Ibid, P.18.

51) F. D. Bruner, op. cit. P.74.

5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3) 조 용기, op. cit. P.144.

Ⅳ. 성령 세례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

1. 성령 세례(baptism with the Holy Spirit)

1)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물세례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것을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외부적으로 인정하는 수단이 되는 반면에 성령세례는 내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그의 영원한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54]

성령세례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로 생각하기 쉬우나 신약성경은 분명히 세례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와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가리켜서 성령세례라고 가르치고 있다.[55]

성령세례는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실시하는 세례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다. 사실 신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복합명사 형태의 "성령세례"라는 말 자체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신약에서 일조의 동사 형태로 즉 "성령으로서의 세례" 라는 말은 전치사'εν '와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성령세례라고 쓰는 것은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이것을 성령 안에서 세례라고 사용한다.[56]

그러나 또한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서 특히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증거" 즉 방언(Glossalia)으로 성령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고수하며 그들은 "성령 안에서 세례"(baptism in the Spirit)를 회심 또는 회개와 구분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54) 정 흥호, 「성경과 신학 제 20권」, (서울: 도서출판사 횃불, 1996), P.608.

55) 조 봉근, 「본질 신학의 핵」, (서울: 성문출판사, 2000), P.290.

56) 최 갑종, 「성령과 율법」,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P.160.

그리스도의 몸에 믿는 자들이 연합하게 되는 “성령에 위한 세례”(baptism by the Spirit)와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자이며 그의 목적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구분하는 것이 오순절파 사람들이다.[57]

신약에서 “성령세례”는 성령이 주시는 세례라는 의미로서가 아니고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등이 종말론적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베푸시는 메시아적이며 종말론적인 세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58]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 이전에는, 즉 예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성령세례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 이루어진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세례는 약속이 아닌 성취의 상태로 전환되어 졌다. 행 2:17~33, 갈 3:14, 엡 1:13또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예수(혹은 하나님)는 항상 성령세례의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로 그리고 성령은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의 수단으로(여격) 사용되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세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되며 성령이 성령사역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리라”(행 2:33)라는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눅 24:49)[59]

복음서나, 사도행전, 바울 서신 등을 참조해 볼 때 “성령세례”라는 말을 오순절의 성령강림이나 혹은 중생한 신자에게든지,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대상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신학용어로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령세례라는 용어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복음을 받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

57) 정 홍호, op. cit. PP.595-596.

58) 최 갑종, op. cit. P.161.

59)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하 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세례”를 가리키는 여러가지 다른 표현들, 예를 들면 “성령 주심”, “성령 오심”, “성령 부으심”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 충만” 등의 말과 상호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60]

누가 자신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성령세례라는 용어로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는 것’(눅 24:49), ‘성령이 임하시는 것’(행 1:8),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행 2:4),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행 2:33)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도 오순절의 성령 파송과 관련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요 14:16), ‘성령을 보내시는 것’(요 14:26; 16:7), ‘성령이 오시는 것’(요 15:16; 16:7,13)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가가 오순절의 성령세례 사건을 표현 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들을 다른 장소에서의 성령 사건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성령 사건의 경우에는 ‘성령을 받는 것’(행 8:15,17), ‘성령이 임하는 것’(행 8:16)등의 표현을, 고넬료 가정의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행 10:44), ‘성령이 부어지는 것’(행 10:45), ‘성령을 받는 것’(행 10:47), ‘성령을 주는 것’(행 11:17)등의 표현을, 바울의 경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행 9:17),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에는 ‘성령이 오시는 것’(행 19:5)등의 표현을 각각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누가의 상호 교차적인 용법은 그가 성령 사건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전적으로 구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13에서는 “성령세례”란 표현을 사용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동일한 성령 사건을 복음을 처음 믿는 자들과 관련하여 ‘성령을 주심’(롬 5:5; 고후 1:22; 5:5), ‘성령을 받음’(롬 8:15; 고전 2:12; 갈 3:2), ‘성령을 보내심’(갈 4:6), ‘성령을 인치심’(엡 1:13)등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의 성령 사건과 구분해야 한다면 언어에서가 아니라 전체 본문과 문맥 및 저자의 의도에서 찾아야 할

60) Ibid, PP.161-162.

것이다.[61]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성령세례라는 말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능동태의 경우에는 항상 예수(혹은 하나님)가 주어로 등장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예수 혹은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리는 신적 수동태가 사용됨으로써 성령세례는 인간의 행위에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행 2:38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중에 복음을 전파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한 사실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을 뜻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하다.(갈 3:2,3,5,22; 5:5)[62]

누가는 이미 한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도 다시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누가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성령 충만"이란 표현을 사용한다.(행 4:8,31; 6:3,5; 7:55; 11:24; 13:52)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흔히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의 성령 오심을 "성령세례"로 그 이후에 성령 오심을 "성령 충만"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는 오순절의 성령세례 사건과 바울의 성령세례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성령 충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행 2:4; 9:17), 동일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시 오신 경우에도 성령의 첫 번째 오심을 성명할 때 사용한 "성령을 주시다"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행 5:32) 이점에 있어서는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은 고전 12:3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첫 번째 성령 사건을 표현할 때는 "성령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밖의 서신들에서는 동등한 첫 번째 성령 사건을 말할 때 '성령을 주심'(롬 5:5; 고후 1:22; 5:5), '성령을 받음'(롬 8:15; 고전 2:12; 갈 3:2)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63]

61) Ibid, P.163.

62) Ibid, P.164.

이상과 같은 신약성령의 가름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세례의 중심점이 그 용어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용어가 가르치고 있는 의미, 즉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신, 혹은 이루어 가시는 사건(성령 사건)이라는 점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의미만 강조된다면 그 용어의 차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세례라는 한 용어에 매이지 않고, 성령 수여자의 관점에서 '성령 주심', '성령 보내심', '성령 부으심', '성령으로 인치심'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오시는 성령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오심'이란 표현을, 그리고 수요자의 관점에서는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등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의 다양한 언어 용법에서 관념과 뉘앙스와 강조점의 차이를 찾는데서 멈추지 않고, 마치 다양한 언어 용법이 각각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각각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64]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사이의 기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셨다(행 1:2). 그 기간에 주어진 교훈들은 곧 다가올 승천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 1:4~5,8; 눅 24:49)" 이 약속들의 성취는 오순절에 시작 되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순절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을 규정짓는 사건이요, 구원의 날(고후 6:2)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는 신호다. 이는 마지막 날들의 출발인 동신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미래의 종말론적 삶이 현재의 악한 세대에 예시적인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고전 10:11)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시대들의 성취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에 의한 새 언약의 사역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오순절 사건의 중요성

63) Ibid, P.165.

64) Ibid, P.165.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65]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함께 모인 제자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이었다.(마 16:15~20) 그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그리스도에게 연합 되었다.(요 15:1~11) 이것은 함축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열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되었던(행 1:5) 성령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성령 체험은 성격상 점진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로부터 제자들의 체험이 교회를 위한 규범이 된다고 결론 내리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하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변화 시기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체험한 것은 시대의 전환이며, 그것은 전형적이거나 규범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그들이 성령의 사역의 충만한 분량에 들어가는 일이 필연적으로, 연속성(동일한 성령)과 비연속성(오순절에서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자격과 역할로 오심)의 유형을 반영하여 두 단계로 일어난 것이다. 이 유형은 옛 시대를 벗어나서 새 시대가 출현한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체험도 단회성(singularity)을 지닌 것이었다.[66]

2)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오순절 운동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였는데 은사 운동은 성령 세례대신 성령충만을 주장해왔다. 이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반복으로써 이해된다. 그러나 신약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반복과 같은 의미로서 성령 충만은 없다. 에루살렘 성령 강림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개종시에 성령 받음(행 8:17)과 최초의 이방인들의 개종인 고넬료와 로마인들의 개종시 성령의 강림 (행10:44~45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성령이 처음으로 파송되어 인류에게 오시는 방식으로 재파송된 것이 아니다.

---

65) 싱크레어 피커슨, 「성령」, 김재성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01), P.65.

66) Ibid, P.92.

성령은 오순절에 인류에게 파송되어 오사 백성들에게 영구히 거처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와 에베소와 고린도 등지에서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개종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다시 파송되어 오사 강림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교회에 좌정하신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오심이고 하늘로서 다시 오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 세례의 반복이 결코 아니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성령 세례로 약속되었어도 성령이 실제 오실 때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 성령 받음으로 표시 되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의 반복 형식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 혹은 인도를 말한다. 성령은 인격적 영이시므로 사람들에게 오실 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성령의 지배 혹은 인도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은 현대신학에서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영향력 혹은 감화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인류에게 거주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성령 오심이 하나님 자신의 오심이다. 성령은 사람에게 거처를 정하기 위해 오실 때부터 그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하사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게 하신다. 인류가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게 하신다. 인류가 하나님의 완전한 처소가 되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진다.(계 21:3) 이 완전한 거소가 되도록 하는 준비를 성령이 하신다. 완전한 거소가 되는 것은 죄악을 버리고 거룩해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거룩해지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67]

(1) 성령 충만 = 성령의 지배

성령은 신자들에게 내주하실 때부터 그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 이 인도는 죄와 악과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인격적 영으로 오셨으므로 신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주권적으로 역사 하신다. 성령이 한 개인에게 오시면 믿음을 일으키고 회개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믿음과 동시에 내주한다. 내주는 그 개인과 신자들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심이다. 거처를 삼은 그리스인은 예수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됨은 예수 믿은 다음 믿는 자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이

67) 서 철원, 「성령 신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5), P149.

전달되어 거룩하게 되었다. 중생은 죄를 씻음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뜻한다. 이 새롭게 하심이 거룩하게 됨이다. 이 거룩하게 됨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신자들에게 전가하여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다.(딛 3:5-6) 이것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전 1:30)의 뜻이다. 그러므로 중생 곧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전 6:11;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뿐아니라 원리적으로 거룩하다(엡 1:4).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지고 그의 의가 전가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원리적으로 거룩하여도 거룩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시작점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엡 4:13). 이 거룩하게 됨은 그리스도인 자기의 옛 사람 육 곧 죄의 뿌리를 억제하고 죽임으로 이루어진다. 옛 사람은 중생 이전에 자연인으로 살았던 모든 생활 체계를 뜻한다. 옛 사람으로의 생활 체계의 근본은 죄이고 죄의 추구이다.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어도(고후 5:17) 그 새 사람은 옛 사람과 함께 산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원리적으로 죽었어도 그 자체로는 완전한 죄를 구성한다(롬 6:6). 그러므로 남은 죄로 지목된다. 의지와 감정과 욕망이 다 죄로 조직되고 구성되어 육체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롬 8:12, 13). 지성도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과 그의 지식과 무관하게 사고하고 지식을 획득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아직 온전해지지 못하였다(고후 10:).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감화하고 역사하여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역사함이 성령의 인도이고 지배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하므로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지배이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배 혹은 통치가 성령 충만 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엡 5:18에서 한번 사용하였고, 다른 서신들에서는 성령의 인도로 표현하였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충만도 그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신약 전체의 문맥은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인도 혹은 지배이다.[68]

(2) 엡 5:18성령 충만을 받음 = 성령 통치 받음

68) 서철원, 149-151.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형을 표시하였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으라' 이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을 썼다. 현재 수동태 명령을 씀으로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음은 내 노력에 의해 영으로 충만케 됨을 배제한다. 그리고 이미 영을 받아 가졌음을 전제한다.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 또 현재 명령형이므로 계속적으로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어야 할 당위를 표시한다. 이미 영이 주어져 있으므로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음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 받음을 뜻한다.

엡 5:18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본문의 전반구 대구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이다. '술취하지 말라' 여기서 중간 형태 명령어를 취함으로 취하는 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한다. 계속해서 술취함은 구제될 수 없는 방탕임을 밝힌다. 이런 술취함과 영으로 충만케 됨을 대조하므로 여기 영은 새 생명의 원리 혹은 능력으로 이해할 수있고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 원리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주의 뜻 분별, 세월을 아낌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새 생활의 원리 혹은 능력으로 이해함이 바르다고 할 수 있다. 엡 5:18에 영에 정관사나 거룩이 첨가되지 안했음으로 위에서 살핀대로 이해함이 바르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번역과 현대어들의 번역에 의해 영을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됨 곧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됨을 뜻한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연관해서 전개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는 통치의 영역 곧 충만으로 표현하였다(엡 1:23).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됨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에게 지배됨을 뜻한다. 성령으로 충만케된 자는 전적으로 성령께 메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를 뜻한다. 이 성령 충만은 L.플로르의 지적대로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성령충만은 통상 생각하듯 물리적 양적 채움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히 지배받음을 뜻한다.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일은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여 거룩해지는 것을 뜻한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받음을 말한다. 이 일은 오순절 후 사도들과 처음 제자들에게 잘 나타났다.[69]

(3) 사도들의 성령 충만 =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 곧 성령에 지배받음

---

69) 서철원, 151-152.

성령은 하나님과 주 예수에 의해 파송되었어도 인격으로 오셨다. 주권적 하나님으로 오셨으므로 인류에게 오실 때부터 그들을 지배 하였다.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강림하셨을때 누가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표현하였다.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였음은 행 2:4의 후반절이 잘 밝힌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은 동시에 방언을 시작하였다.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주신대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성령이 시키신대로 하였다. 성령의 지배외에 달리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께서 주신대로 말하기 시작한 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함을 받음과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일을 표현하기 위하여 두 동사를 다 단순과거 시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함을 주시는 것은 미완료로 표시하였다. 성령이 말하도록 주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해야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 베드로가 전도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행 2:5-13) 방언의 목적은 그리스고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성령을 받은 처음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에 전적으로 메여 있었다. 성령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였기 때문이다.

첫 성령 수납의 경우에 이어서 성령 충만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반복되어 적용되었다. 행 4:31에는 간절한 기도와 전적인 신뢰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행 4:31). 성령은 예수 전파를 위해서 오셨음으로 제자들을 주장하여 예수증거를 하게 하셨다. 핍박과 교회 존립의 위기에 그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적인 지배에 들게 되어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할수 있었다.

행 4:8에 의하면 베드로가 제사장들의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이 그를 전적으로 지배함으로 담대히 주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있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그 존립을 위태하게 하는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었으므로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이기도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또 성령께서도 그들을 완전히 사로 잡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사로 잡혀 있었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복

음을 증거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들은 충만하였다. 즉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었다.

성령 충만은 일곱 집사들에게도 적용 되었다.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체가 되어 구원 받은 백성들로 살아야 하므로 성령에 지배되고 지혜가 있어야 바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했다(행 6:3).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어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의 죄성의 발로가 빈번하지 안했으므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집사로 선택된 사람들 중에 스데반은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복음의 도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행 6:8)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었다. 성령으로 말하므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복음 증거를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성령에 전적으로 지배되므로 죽음의 위협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다(행 7:55). 이 본문 구성을 보면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 충만한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순교에 까지 이르러 갈 수 있었다. 순교는 신앙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가능하다.

성령 충만은 제2세대 사도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들이 사도로 세워지는 요건은 성령에 전적으로 메이는 데 성립하였기 때문이다. 바나바는 전도자로 시작하였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열성과 선한 마음 그리고 복음 전도의 큰 능력은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지 않고서는 안될 일이었다. 성령은 그를 지배하였다.

성령 충만은 바울에게도 적용되었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사도로 세워지고(행 13:2), 성령에 의해 복음 전파자로 파송되었다(행 13:4).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금시하며 기도하여 주의 뜻을 기다리고 복음을 선포한 전도자였다. 그러므로 성령께 전적으로 내어맡긴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성령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복음을 전하였다. 첫 전도 여행시 복음의 대적을 만나 그를 책망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지배되어 복음의 대적을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었다. 바울은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았다.

성령 충만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시 예수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들은 예수만 믿을 뿐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믿음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졌다, 그들은 예수를 믿을뿐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었다. 그러므로 기쁨이 넘쳐났다. 나아가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구원의 도를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기쁨과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지배된 사도들에 의해 예수 믿어 성령 받았으므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였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는 비시디안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행 13:52의 예로 중단 되었다. 그 이후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처럼 그렇게 힘있게 전개되지 못했다고 볼 수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를 보면(살전 1:6) 성령 충만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바울의 서신에 성령의 인도가 강조됨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처음 세대와는 강도가 낮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 아니라 처음 믿을 때의 큰 기쁨과 성령 충만에서 나아가 삶에서 죄와 싸우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는 바로 성령 충만이다.[70]

(4) 성령의 인도 = 성령 충만 = 죄악을 벗음

성령의 인도는 세상의 영들에 의해 우상들에게로 끌리어 가는 것과 대비하였다(고전 12:2-3). 자기 힘과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상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죄외 악령들에 의해 우상들에게로 인도되었다.

사람들이 주 예수에게로 인도되는 것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안된다(고전 12:3). 성령으로써만이 예수를 주라고(고전12:3) 신앙 고백 할 수있다.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 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하고 말할 수 없다(고전 12:3). 사람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는 성령 뿐이다.

성령에 의해 끌리어야 예수 믿게 되고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롬 8:14). 여기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음이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다. 성령의 인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도는 죄악을 벗음으로 나타났다(롬 8:12-14). 성령의 지배받는 자들만이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벗으려 하기 때문이다. 성령으로만이, 몸의 행실들을 죽일수 있고(롬 8:13), 그 때만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죄악을 벗고 거룩해진다, 성령의 인도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70) 서철원, 153,156.

성령에 의해 인도되면 죄악의 행실들을 벗는다(갈 5:18-21).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하고 있지 않으며 죄의 상태 아래 있지 않음을 뜻한다. 법은 범죄를 금지하기 위하여 세워졌기 때문이다. 법은 현행 범죄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죄짓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그런 죄를 범하는 법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므로 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의 인도가 성령의 지배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인도에의해 사람들이 주 예수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몸의 행실들 곧 죄악을 벗기 위해 노력한다. 이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성령으로 인도 받아서 이루어진다. 성령은 사람들이 죄악을 벗고 거룩해지게 역사 하신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행실들을 죽이게 하는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인도이다.[71]

2) 개혁주의의 견해

(1) 조 봉근 박사

조 봉근 박사는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활동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지, 성령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활동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신앙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시인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때 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 하셔서(마 16:17) 일시적으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한 이후에(마 16:13~19) 흔들리고 변질되었던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

공관복음에서(막 1:8)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미래형)와 요한복음에서(요 1:33)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현재형)는 사도행전에서(행 1:5; 11:6)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한다.[72]

요한복음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71) 서철원, 156.157.158.

72) 조 봉근, 「본질 신학의 핵」, (서울: 성문출판사, 2000), P.291.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엡 5:26)고 말씀하셨다. "성령세례"와 "중생"은 동시성을 가진다. 그러나 성령세례와 중생은 구별해야 하고, 또 구별하지만 분리 시켜서는 안 된다.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공동적으로 중생을 "성령에 의한 사역"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고로 중생이란 예수님 편에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가리키지만 인간 편에서는 "성령 받음"이나 "성령으로 세례 받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역으로 "성령으로 세례 받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고 구원론적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중생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은 근원적으로 누가 보내신 성령이냐가 신학적 분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 삼위가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셨지만, 창조하신 후 인간의 타락 때문에 구원사의 궁극적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리고 이 객관적 사역을 실제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따라서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성령 말씀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분명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73] 다시 말해서 단순히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주심"이라고 표현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인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밝힐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게 되며, 구원사적인 일관된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서 성령 오심의 종말론적 의미를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가 "성령세례 받음", "성령 충만을 받음", "성령으로 옷 입음"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세례 받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73) Ibid, P.292.

옷 입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이요, 결단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령세례를 받음"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 충만을 받음"이 아니며, "그리스도를 배제한 성령으로 옷 입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 자체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중생이나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령 자체의 사역이지만 원초적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령의 역사"는 "대속의 죽음 → 부활 → 승천 → 오순절의 성령강림"이라는 신학적이며 구원사적인 도식(diagram)에 의해서 설명되는 명확한 진리가 도출된다.[74]

다시 말해서 "대속적 죽으심 → 부활하심 → 승천하심 → 성령으로 강림하심"의 도식 속에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성령의 강림하심은 "성령의 종말론적이며 궁극적인 임재"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령의 종말론적이면 궁극적인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활동과 어떻게 다른가?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령의 종말론적이며 궁극적인 임재"는 사도행전,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실현된 성령의 종말론적이며 영구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그 중대한 의미는 두 번 다시 있을 필요가 없는 단회적 사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전개되는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라든지, 9장에서 바울에게 역사한 성령이라든지,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이라든지, 19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모두 다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의미의 성령강림 사건이다.

아주 더 쉽게 말해서 2장, 8장, 9장, 10장, 19장의 성령강림은 모두 다 예외 없

74) Ibid, P.293.

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실현된 성령의 종말론적이며 영구적인 임재”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된 성령의 임재이며, 그리스도가 약속하신대로 그가 보내신 바로 그 보혜사이다. 그렇게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의 종말론적이며 영구적인 임재”는 재현되거나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며, 1차 2차로 나뉘어서 오시는 성령의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중생”이나 “성령세례”나 “성령 충만” 혹은 “성령 받음”(행 8:15,17; 10:47) “성령의 임하심”(행 2:33; 10:45), “성령이 오심”(행 19:5), “성령을 주심”(행 11:17; 15:8)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은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 문학적 기법일 따름이지 신학적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다.[75] 어떤 본문에서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똑같은 사건과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현해서 그 많은 표현과 용어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표현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순절 이후의 성령세례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가리키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 “성령세례”란 용어와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성령세례”는 그 세례의 효력을 결코 무효화 시킬 수 없는 세례이며, 항구적인 능력을 가진 세례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기초적인 성령세례”를 받고 이차적으로 “고차적인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신약의 성령세례는 변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설명식의 표현을 가진다. 이와 같이 “영구적이며 궁국적인 임재”로서의 “성령세례”를 가리키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시 51:11) 주의 성신이 떠날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제 2 축복이나 2차적 세례를 요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성령세례”는 우리 속에 영구적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히 지울 수 없게 인치신 사건이면, 더 이상의 보증이 필요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75) Ibid, PP.293,294.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배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76]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속에 영구적으로 내주하시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최상의 가치로 보증하신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늘 기존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성령 충만 받음"의 사건이요, 동시에 "성령세례 받음"의 사건으로 말씀 하신다.[77]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순절 이후 신자는 하나의 성령세례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즉 성령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회심하며 믿음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중생도 성령의 역사요, 회심이나 믿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나타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세례는 보다 큰 범주로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포함(포섭)하며 중생이나 회심 및 믿음은 그 안에 포섭(포함)된 작은 범주(category)에속하는 것이다.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유일무이한 세례이다. 한 마디로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이다.[78] 구약의 신자들이 장차 성육신하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적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역시 구약의 신자들이나 오순절 이전의 신자들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 등을 비롯한 구속사의 가나긴 장정 끝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그리스도의 세례 즉 성령세례를 바라보면서 예비적이며 모형적으로 있었던 '영적 역사의 서막(서론)'이었다. 그러나 '영적 역사의 서막'이라고 우리가 묘사한 '하나님의 영'의 광의적이고 전(omni) 포괄적인 사역은 실체적 본궤도(무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세계와 무관한 역사가 아니요, 바로 연속적이고 연계된 역사인 것이다. 마치 빛이 프리즘(prism)의 초점에 맞출 때 결정적 광채가 일어나지만 빛이 수렴되기 이 전에도 빛은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모아져 한 초점을 향하여 수렴되어 오는

76) Ibid.

77) Ibid, P.295.

78) 조 봉근, 「성경적 교의신학」, (광주: 도서출판 복음문화사, 2004), P.271.

것과 유사하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자들(아브라함과 다윗 및 욥, 다니엘 등)은 그리스도의 세례(성령세례)의 대행사역(an acting work of the Holy Spirit; 예비사역)인 광의적 사역(the broader work of omni-sense in the Holy Spirit)에 의해서 중생과 회심 및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세례인 성령세례는 그야말로 수직적인 역사(the vertical work of God)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탄원과 상관없는 신적인 단독 사역이며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그러나 영적은사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심령속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79]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역사하시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편재)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롬 8:26~27) 성령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으로 계셔서 계속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의 내부로 침투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역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반응적으로 작용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반응적 역사 혹은 응답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세례인 성령세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은사(성령의 은사들)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는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소욕과 역사를 따라서 영적은사들(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육성이나 부패한 인간의 자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여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인 성령세례를 받기 위하여 또 다시 기도하는 것은 무용한 태도이지만 영적은사들(성령의 은사들)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

79) Ibid, P.272.

당연한 처사인 것이다. 오순절 이후에 살고 잇는 신자들은 마땅히 성령세례를 받아야 중생이나 회심 및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세례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속죄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이후 즉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구원사(구속사)에 있어서 해석의 차원이 다르다.[80] 실체가 오시기 전에는 모형이 대리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나 실체가 오신 후에는 모형이 계속적으로 대행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제사의식이 모형적으로 필요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를 대행하는 구실을 수행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제를 완성하신 후에는 오로지 영적제사인 예배만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기름부음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영역을 나누어서 대행했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삼직을 직접 수행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으나, 신약시대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셨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으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 영(성령)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신다.[81] 사도 바울은 갈 4:1~7절까지의 말씀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후견인과 상속자의 관계로 비유했다(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 4: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세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중생의 사역이나 회심의 사역 및 믿음의 사역이 모형적으로(예

80) Ibid, P.273.

81) Ibid, P.274.

표적으로)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오순절 날 성령세례[82]를 주신 이후에는 임시적인 방편들이 무용하게 되었다.

물론 성령세례도 넓은 의미에서 성려(하나님의 영)의 사역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속죄 사역[83]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84] 세례라는 특별한 의미에서 구별해야 된다.

82) 단회적 사역(once for all).

83) 단회적 사역(once for all).

84) 단회적 사역(once for all).

Ⅴ. 결론

먼저 장로교인 그리고 개혁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로교의 선배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장로교회를 지켜왔는지를 배우게 한다. 그것은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기에 목숨과 바꾼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진리이며 말씀 맡은 자들의 의무일 것이다.

오순절운동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장로교회가 성령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시인하게 된다.

오순절운도의 성령론은 성령세례론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는 성령세례는 중생이후에 나타나는 제2의 축복이라는 것과 이 성령세례의 처음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방언을 성령세례의 표징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방언 체험이 없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왜곡되어진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체험과 갈망에 대한 충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 성령의 세례는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여되는 것이다. 반면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의지대로 각자에게 상이하게 주어진

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그러나 체험이 곧 기독교는 아니다. 말씀이 선행되어야 하고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성도의 체험은 귀중한 것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현장에도 일어난다.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건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어 삶이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이 영위 될 뿐만 아니라 능력있게 복음이 증거 되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하겠다.

참고 문헌

A. 국내 단행본

1. 조 봉근. 『성령론 무엇이 문제인가』. 복음문화사, 1991.
2. 조 봉근. 『성경적 조직신학』. 복음문화사, 2002.
3. 조 봉근. 『성경적 교의신학.』 복음문화사, 2004.
4. 조 봉근. 『본질 신학의 핵』. 성문출판사, 2000.
5. 이 종윤. 『요한복음 2』. 도서출판엠마오, 1991.
6. 최 갑종. 『성령과 율법』.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7. 조 용기. 『성령론』. 영산출판사, 1978.
8. 서 철원. 『성령 신학』. 총신대학교출판부, 1995.

B. 번역서

9. F. D. Bruner. 『성령 신학』.김 명용 역. 서울: 도서출판 나눔사, 1989.
10. Sinclair B. Ferguson. 『성령』.김 재성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2001.
11. Robert G. Gromacki. 『현대 방언 운동』. 김 효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12. R. A. Torrey. 『성령론』기독교서회편집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C. 정기 간행물

13. 정 홍호. 『성경과 신학 제 20권』,“선교와 성령”도서출판사횃불,1996.
14. 김명용.『교회와 신학 제 22집』,“오순절운동의 성령론의 특징과문제점”,1990.5.
15. 차영배.『신학지남 제 48집』“오순절 성령운동과 개혁 신학의 원리”,
1981, 여름.